고비어의 수렴 논증에서 반대사유의 지위에 관하여

홍 경 남*

주제분류 서양철학, 논리학

주 요 어 수렴 논증, 수렴적 지지, 반대사유, 찬반 논증, 고비어

요 약 문

본 논문은 웰만이 정초하고 고비어가 발전시킨 수렴 논증에 관한 것이다. 고비어는 수렴 논증의 특징을 분석 정의하고 그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제시한다. 고비어에 따르면, 수렴 논증은 통상 찬성 이유와 더불어 반대사유를 포함하기에 그 추론의 적절성 평가는 찬반 저울질을 관건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수렴 논증의 반대사유는 찬성 이유와 저울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반대 무효를 주장하는 전제의 주제로서 도입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www.kci.go.kr

1. 들어가는 말

1) 수렴 논증의 개념

웰만(Carl Wellman)은 윤리적 추론의 한 특징을 '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대를 포괄하여) 다양한 측면의 이유들이 제시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추론을 다루기 위해서 기존의 '연역(deduction, de+ducere, leading out of)'이나 '귀납(induction, in+ducere, leading into)' 추론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서 '수렴(conduction)' 추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다양한 이유들이 함께(con, com, together)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한다(ducere, leading)는 점에서 '수렴(conduction, con+ducere, leading together)'이다.[1)]

고비어(Trudy Govier)는 웰만의 수렴 개념을 다듬어서 논증의 한 유형으로 만들면서 수렴 논증(conductive argument)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한다. 고비어에 따르면, '수렴 논증'은 전형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수렴 논증에서 하나 이상의 전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결론과 관련을 맺으면서 함께 누적하여cumulatively 해당 결론을 지지'한다('수렴적으로convergently 지지'한다). 단, 전제들이 개별적이든 집합적이든 결정적으로 결론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둘째, 논자는 보통 결론에 반대하는 '반대사유들(counter-considerations)'을 인식하고 인용한다.[2)]

고비어에 따르면, 수렴 논증은 결단, 해석, 분류 등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어디서든 흔히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윤리, 역사, 고고학, 과학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예컨대 과학 영역에서는 가능한 가설들 중에서 표적이 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1) Carl Wellman, *Challenge and Respons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1, pp. 51-53.

2)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1999, pp. 155-157.

www.kci.go.kr

런 가설의 선택은 단순성의 측면, 정합성의 측면, 간결성의 측면 등 여러 측면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해당 가설은 그런 각 측면에서 빼어난 특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거나 할 것이다. 그런 사실이 다양한 이유로서 자리하여 해당 가설이 최선의 가설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전형적인 수렴 논증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이 등장하는 수렴 논증의 경우 대개는 찬성하는 측면의 이유만큼이나 '반대하는 측면의 사유(반대사유)'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사유는 논자나 논증 수용자 내지는 평가자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논자는 자신의 논증을 수용하거나 평가할 상대방이 반대사유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성 이유만을 늘어놓고 있다면 자신의 성실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반대사유를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할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자는 '이러저러한 반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찬성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주장은 성립한다'고 논증하게 되는 것이다.

고비어는 특히 반대사유가 있는 수렴 논증에 대한 평가는 여타 유형의 논증에 대한 평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찬성과 반대가 함께 등장하기에, 찬성만이 등장하는 논증과는 달리 찬성과 반대를 저울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결론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충분하게 뒷받침하는지' 판단하게 되는 추론의 적절성 평가는 찬성이 반대를 웃돌거나 상회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뤄진다. 찬성이 반대를 웃돌거나 상회하는 경우에만 해당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충분하게 뒷받침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고비어가 수렴 논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수렴 논증에 대한 분석에서 논자가 찬반 저울질 주장을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고비어에 따르면, 논자는 자신이 제시한 찬성

www.kci.go.kr

이유가 자신이 인용한 반대사유를 상회한다고 수렴 논증을 통해서 암암리에 주장한다.[3)]

2) 반대사유의 문제

그런데 고비어가 정의하는 수렴 논증의 특징에서 '반대사유'의 존재와 '수렴적 지지'는 몇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여기서 반대사유는 말 그대로 결론에 반대하는 사유다. 전제에 대한 반대는 '논박'의 구실을 하면서 해당 전제가 사라지거나 해당 전제에 흡수되기에, 그런 반대가 전제로서 등장하는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찬반이 모두 논증에 등장하는 경우가 되지 못한다. 반대사유는 찬성 이유와는 다른 측면에서 결론에 반대하는 사유다. 또한 논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결론에 대한 '가능하거나 잠정적인' 반대의 경우도 '반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논자가 제시하는 논증의 성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사유'는 논자가 인식하고 있거나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반대사유는 논자가 인식하고 인용하면서도 반대로서 충분치 않기에 찬성 이유에 의거해서 결론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반대사유가 등장하는 논증은 '한' 논증이 아니라 '두' 논증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찬성 이유와 그에 따른 주장을 결론으로 하는 찬성 논증과 반대사유와 그에 따른 반대 주장을 결론으로 하는 반대 논증이 그것이다. 하지만 고비어가 '반대사유'가 등장하는 논증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도 결론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논증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러 독립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3) Trudy Govier,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2005, p. 397. "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eds) J. A. Blair & R. H. Johnson,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Individual author and College Publications, 2011, p. 266.

www.kci.go.kr

데 모두 합해서도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대부분 찬성 이유만큼이나 반대사유가 존재함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논증 수용자나 논증 평가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찬성 이유만을 인용하는 논증보다는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도 찬성 이유 때문에 결론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논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찬성만이 아니라 반대도 인용하는 편이 더 성실하다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대사유의 인용이 논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비어는 논자가 '반대사유'를 인식하고 인용하면서 수렴적인 지지 방식을 취하는 논증을 '수렴 논증'으로서 정의하면서 해당 논증에서 반대사유의 지위를 '반대-전제anti-premise' 내지는 논증 지시어와 같은 보조 요소로서 정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진(Rongdong Jin)[4]과 핸슨(H. V. Hansen)[5]은 그런 고비어의 처리가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각기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둘은 모두 '반대사유'가 논증의 구성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하는 점과 반대사유의 존재와 수렴적 지지 방식은 양립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논증에서 전제는 결론을 지지하거나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기에, 반대사유는 정의상 논증의 전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사유는 논증의 구성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다음으로 반대사유가 인용되는 논증의 경우 찬반이 동시에 자리하게 되기에, 찬반을 저울질하는 어떤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바로 (찬성 측 내지는 반대 측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찬반 저울질 주장이 암묵적으로라

4) Rongdong Jin, "The Structure of Pro and Con Arguments: A Survey of the Theories,"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pp. 10-30.

5) H. V. Hansen, "Notes on Balance-of-Consideration Arguments,"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pp. 31-51.

www.kci.go.kr

도 가정되어 있다고 보게 되면, 이제 해당 논증은 결합 논증이 되어 버린다.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성 이유와 반대사유 및 찬반 저울질 주장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수렴적 지지'라는 요건은 상실되어 버린다.[6)]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된 것임을 드러내고, 그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논증 재구성의 방식에 따라 논증 평가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증 평가는 논증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모색은 수렴 논증에 대한 고비어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2. 논증에서 반대사유의 기능

논증은 한 핵심 주장과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이뤄진다. 그런데 때로 논자는 반대사유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곤 한다. 물론 논자는 그런 반대사유의 언급이 자신의 논증이 갖는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리하는 것이리라. 어떻게 반대사유가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그 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뤄두고, 논증에서 이런 반대사유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사유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반대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논증의 구성요소이기는 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논증의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6) 수렴/결합 지지구조의 구분에 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논증의 지지구조 연구」,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2013, 34집.

www.kci.go.kr

우선 반대사유가 논증의 전제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논증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의상 논증의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거나 지지하는 이유다. 반대사유는 말 그대로 결론에 반대하는 주장이기에 전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애초 수렴 개념을 제안한 웰만은 '전제'의 개념을 다만 앞에 오는 것이라고 넓게 규정하여, 반대사유도 결론 앞에 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제라고 주장한다.[7] 고비어는 웰만의 전제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서 표준적인 논증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반대사유가 전제는 아니지만 논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반대-전제(anti-premise)라고 칭한다.[8] 그리고 그것이 전제 지시어나 결론 지시어 등과 같은 지위를 갖는 논증의 보조 요소라고 주장한다.[9]

진(R. Jin)은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논증이 찬반 저울질 전제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반대사유가 해당 전제에 의거해서 찬성 이유와 결합하여 결국은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의 일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찬반 저울질 전제는 "함께 고려한 찬성 이유들이 함께 고려한 반대사유를 웃돌거나 상회한다"라는 취지의 것이다. 진에 따른 논증 구조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10]

1. 찬성(pro) 이유들(p^1, p^2, …, p^n)이 성립한다.
2. 반대(con)사유들(c^1, c^2, …, c^n)이 성립한다.
3. (함께 고려한) 찬성(p^1, p^2, …, p^n)이 (함께 고려한) 반대(c^1, c^2, …, c^n)를 웃돌거나 상회한다.

------- (1+2+3)

4. 결론이 성립한다.

---

7) Carl Wellman, *Challenge and Response*, p. 57.

8)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p. 156.

9) Trudy Govier, "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p. 269.

10) Rongdong Jin, "The Structure of Pro and Con Arguments: A Survey of the Theories," pp. 28-29.

www.kci.go.kr

핸슨(H. V. Hansen)은 반대사유가 찬성 이유로 이뤄지는 전제와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찬성 이유는 반대사유를 상회한다”라고 주장하는 전제 속 내용을 이루면서 해당 전제의 주제로서만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핸슨에 따른 논증 구조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11]

1. 찬성(pro) 이유들(p^1, p^2, …, p^n)이 성립한다.
2. (함께 고려한) 찬성(p^1, p^2, …, p^n)이 (함께 고려한) 반대(c^1, c^2, …, c^n)를 웃돌거나 상회한다.

------- (1+2)

3. 결론이 성립한다.

우선 현대 논증론에서 ‘전제’에는 대개 결론을 지지하는 역할이 할당되기에 반대사유를 전제라고 간주하는 웰만의 방식은 수용되기 어렵다. 반대사유를 반대-전제로서 간주하는 방식은 찬성에 따른 결론과 반대에 따른 결론 두 가지를 상정하게 만들어, 한 논증을 둘로 나눠버린다. 전제 지시어나 결론 지시어 등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반대사유가 논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한편 진의 방식은 사실상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논증을 결합 논증으로 만들면서 수렴 논증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핸슨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도,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문장이 찬성 이유들과 결합되어 결론으로 인도하는 방식이기에 수렴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진의 방식처럼 찬반 저울질 전제를 상정하여 찬성 이유들 및 반대사유들과의 결합을 꾀하는 논증에 관해 생각해보자. 이처럼 수렴적 지지가 아니라 결합에 의한 지지 구조를 갖는 논증에서 전제들은 오직 결합을 통해서만 결론을 지지할 수 있기에, 결합된 전제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결합된 전체가 전제 하나

11) H. V. Hansen, "Notes on Balance-of-Consideration Arguments," p. 39.

www.kci.go.kr

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 요소가 찬성 역할이 아니라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의 지지 기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의 방식은 일반적인 '전제'의 정의와 상충되지 않고 일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결합에 의한 지지가 아니라 수렴적 지지를 의도하면서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어떻게 수렴적인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논증의 정의를 위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대사유가 논증 구조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가?

3. 반대사유의 존재와 수렴적 지지 방식의 양립가능성

필자는 핸슨처럼 반대사유에다 전제와는 다른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핸슨과는 달리 찬성 이유들과의 저울질을 꾀하지 않는 것이 수렴적 지지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반대사유를 자연스럽게 수렴 논증에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반대사유를 제시하는 '논자의 의도'에 관해 생각해보자. 논자는 반대사유에 대한 언급이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이 내놓는 반대사유를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반대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반대할 만큼 충분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사유에 대한 언급은 '반대 무효'를 내세우는 하나의 암묵적인 주장으로서 자신의 결론을 옹호하는 취지의 전제로서 기능한다. 그래서 전제들의 독자적인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면서도 수렴 구조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대사유는 독자적으로 전제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의 내용 또는 주제가 되는 지위를 갖는다. 논자는 자신이 내세우는 찬성 이유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당 결론에 대한 반대사유가 있고 그런 반대사유가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사

www.kci.go.kr

실을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도 그런 반대사유가 자신의 결론을 반대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제시한다.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을 반대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반대가 반대의 효력이 없다거나 힘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해당 주장을 지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사형제 폐지 논증의 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오판의 경우 돌이킬 수 없다.
2.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다.
3. 생명권은 어떻게든 존중되어야 한다.
4. 사형제가 다소의 강력범죄 예방이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 (1, 2, 3, 4)

5.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가 전제 수용을 논하는 데서도 어떤 주장을 반대할 딱히 중요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런 주장을 수용할 하나의 이유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4번 전제도 5번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로서 제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재구성에서 수렴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비어는 수렴 구조에 대한 시험 기준을 "한 전제를 제거할 때 다른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격인 관련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12] 이 규정에 따를 경우, 1-3에서 5에 이르는 추론은 수렴임에 달리 의견이 없을 것이다. 4의 전제도 역시 그렇다. 1, 2, 3이 없어도 4는 여전히 5를 지지할 수 있고 4가 없어도 1, 2, 3은 여전히 5를 지지할 수 있다.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을 수용할 이유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렴은 유지된다.

이 논증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적인 방식에 더하여 4번 전제에 대한 평

12) Trudy Govier, "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p. 268.

www.kci.go.kr

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번 전제는 아마도 다른 앞선 논의의 결과일 수도 있고 논증 안에서 보조 논증을 통해 그 정당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해당 주장에 대한 정당화는 찬반을 어림하거나 저울질하는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고, 1-3에서 언급했던 찬성 이유가 다시 고려에 들어와서 찬성과 대비되어야 하는 복잡한 이중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4번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1-3의 찬성 이유와 견주는 작업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1-3에서 언급된 이유와는 다른 이유와 견주어 그 반대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능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신형과 사형을 비교하며 종신형이 사형만큼이나 강력범죄 예방 및 억제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여 4의 소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1-3의 이유와는 무관한 이유다.

다른 예로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증을 고려해보자.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사람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낮기 때문에 적극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원자력 발전 이용을 반대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은 '안전성 문제가 원자력 발전 이용을 반대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서 아마도 '원자력 안전 설비에 대한 규정이 엄밀하다'는 점, '원자력 발전 지역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인근에 민간인 거주 지역이 없다'는 점 등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애초 논증의 이유는 고려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라. 이는 반대사유가 인용되는 논증에서 찬반 저울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수렴 논증에서도 찬반이 함께 등장하고 저울질 전제가 암암리에 자리한 방식을 논자가 의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대가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논자는 결국 결합 논증을 의도한 것이지 수렴 논증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13] 수렴적인 지지 방식의 논증에 등장

www.kci.go.kr

하는 반대사유의 기능과 결합적인 지지 방식의 논증에 등장하는 반대사유의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논자는 물론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 찬성 이유와 저울질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찬성 이유들과 반대사유들이 각기 등장하고, 이 둘을 저울질하는 '찬성이 반대를 상회한다' 내지는 '반대가 찬성을 상회한다'는 취지의 저울질 전제가 등장하여 찬성 측 주장이나 반대 측 주장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논증은 전체적으로 결합적인 지지 방식을 이루고 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찬반의 존재 및 저울질 전제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찬반 논증 자체가 붕괴하고 만다. 이와 달리 수렴적인 지지 방식의 논증에서 반대사유는 저울질을 목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반대사유가 '반대'로서 충분한 힘이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즉 수렴적 지지 방식에서 반대사유는 반대의 '무효성' 내지는 '무력성'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인용된다.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 그런 반대사유가 결론에 반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 한 독립적인 전제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4. 고비어의 수렴 논증 평가 절차 수정

고비어는 반대가 인용되는 수렴 논증에서 그 평가 절차는 대개 찬성 이유들을 평가하여 값을 정하고 반대사유들을 평가하여 값을 정하며, 그 찬성 값과 반대 값을 저울질하여 논자의 주장대로 찬성이 반대를 웃돌거나 상회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상회한다면 전제가 결론을 충분하게 지지하는 것이 되고, 상회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지지하

13) 의도에 따라서 수렴 논증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라면 해당 논증 유형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대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다음 논문 참조. 「연역과 귀납의 분류」,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2012, 31집, pp. 218-222.

www.kci.go.kr

지 못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수렴 논증에서 반대사유의 기능을 앞서와 같이 규정할 경우 그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반대사유에 대한 평가가 해당 논증의 추론에 대한 평가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대한 평가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고비어는『논증의 철학(1999)』에서 찬성과 반대사유가 인용되는 수렴 논증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제시하면서, 전제에 대한 평가, 찬성 이유들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반대 사유들이 결론에 반대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단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평가된 찬반의 강도를 저울질하여 추론의 적절성(근거의 충분성) 평가를 마무리한다.[14] 보다 최근의 저작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대사유들에 비추어 평가할 때 전제들에서 진술된 이유들이 갖는 누적 강도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부정적 관련성을 맺는 주장들이 긍정적 관련성을 맺는 주장들을 상회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증의 이점에 관한 판단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전제들이 결론을 옹호하는 근거를 반대사유들이 결론에 반대하는 근거보다 더 낫게 제공한다는 논자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중략)… 함께 고려할 때 전제들이 반대사유들을 상회하는지 반성하여 판단하라. 이 판단을 위한 좋은 이유들을 명시하려고 노력하라. 전제들이 반대사유들을 상회한다고 판단한다면, 관련성과 충분성 요건이 만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다.[15]

반대사유를 인용하고 있는 수렴 논증에 대한 평가 일반에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충분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반대사유를 함께 고려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논자가 반대사유를 제시하는 통상적인 목적이 '자신이 제시한 찬성이 반대를 상회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님에

14) Trudy Govier,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p. 170.

15) Trudy Govier,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pp. 398, 404.

www.kci.go.kr

주의해야 한다. 논자는 반대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논증을 강화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제시된 반대사유는 찬성 이유와 견주거나 대결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반대할 충분한 효력이 없음을 보이는 반대 무효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전제 자체는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가자는 반대사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반대사유와 결론의 관계인 추론 관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사유가 반대로서 무효하다'라는 주장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찬반수렴논증에 대한 평가 과정은 고비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된다. 고비어의 평가 과정에서 핵심은 찬반을 저울질하여 찬성이 반대를 상회함을 확인하였다면 전제가 결론을 충분하게 지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수렴 논증 해석에서 평가 과정은 그와 같지 않고 일반적인 논증 평가 과정과 동일하다. 전제가 각기 결론과 적절한 관련성을 맺는지 평가하고 전제 모두가 한데 어울려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찬성 이유 각각에 얼마나한 비중이 주어지는지, 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전체 비중은 얼마인지 하는 것은 논증의 맥락에 따라서 따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반대사유가 있는 수렴 논증이 찬반을 어림하거나 저울질하라는 요구나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 논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반대사유가 결론에 반대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수용자나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자의 주장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찬반을 어림하거나 저울질하는 일을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험에서 전제로서 인용한 찬성 이유들이 꼭 등장해야 할 필요란 없다. 논자는 다른 이유와 견주어 해당 사유들이 반대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여타 문제가 있는 전제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

www.kci.go.kr

지로 '반대 무효' 전제를 평가하는 작업이지, 추론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고비어의 수렴 논증 평가 절차는 수정되어야 한다.

고비어의 평가 절차가 수정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수렴 논증에 대한 평가가 찬반의 저울질에 맞춰질 때, 정작 필요한 "찬성 이유들이 그 자체로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가?"라는 물음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찬반 이유가 충분한 이유이기 위해서는, 일단 찬성 이유가 결론을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결론을 반대하기에 충분치 않아야 한다. 반대사유를 고려하는 전제는 정확히 한 논증 안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흔히 '저울질 전제on balance premise'로서 규정되곤 하는 '찬성 이유가 반대사유를 상회한다'라는 주장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는 해당 논증을 결합 논증으로 만들면서,[16] 다만 "찬성 이유가 반대사유를 상회한다"라는 것이 결론을 위한 충분한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격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소하거나 부적절한 이유가 찬성 이유로서 제시될 수 있고, 그 사소하거나 부적절한 이유가 단지 제시된 반대사유와 견줄 때 그것을 상회하는 이유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사소하거나 부적절한 이유를 충분한 이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런 빈약한 이유가 단지 논자가 구상한 반대사유를 능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당 논증의 추론이 충분히 강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능히 약한 이유로 내지는 잘못된 이유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글리에리(Fabio Paglieri)는 고비어의 사례를 재해석하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7]

---

16) 고비어는 최근 저작("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p. 274.)에서 찬반저울질이 다만 메타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지만, 이는 추론 수준을 이원화하는 것이기에 더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17) Fabio Paglieri, 2013, "Critical Review on *Conductive Argument*," *Informal*

www.kci.go.kr

> "영희는 발음이 분명치 않지만 아주 다정하기에, 그녀를 비서로 고용해야 한다."

고비어에서 이 논증에 대한 평가는 비서 자격 요건으로서 그녀가 아주 다정하다는 사실과 그녀의 발음이 분명치 않다는 사실을 견주어 전자가 후자를 상회하지 않기에 충분치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빠글리에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아주 다정하다'는 이유 자체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이뤄낼 수 없게 한다. 비서 자격의 주요 요건이 신뢰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럴 경우 그녀가 다정하다는 사실은 주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부수적인 요건에 불과하기에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사실 당신은 틀린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주로 그녀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다정하다는 것은 그녀가 발음이 분명치 않다는 사실을 상회할 만큼 충분치 않다."

고비어의 평가 방식은 단지 주어진 찬성 이유와 반대사유에만 주목하여 비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전제와 결론의 관계에 대한 충실한 평가를 이뤄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이 논증하는 울타리 안에서 찬성이 반대를 상회한다고 하여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이다. 찬성이 반대를 상회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은 따로 그 수용 여부를 판정하면서, 다른 찬성 이유들이 실제로 결론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적절한 이유인지 평가를 이뤄내야 한다.

Logic, Vol. 33, No. 3 (2013), p. 451.

www.kci.go.kr

5. 결론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수렴 논증의 경우, 반대사유의 존재와 수렴적 지지의 양립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전제로서 인용된 찬성 이유와 반대사유의 저울질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곤 하기 때문이다. 찬반 저울질이 상정될 경우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저울질되어 한편이 다른 편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렴적 지지 구조가 아니라 결합적 지지 구조를 이루게 한다. 반대사유의 도입이 결합적 지지 구조의 상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수렴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논자의 의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논자는 반대사유를 인용하면서 찬반 저울질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논자는 반대사유의 인용이 결론을 위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비어는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수렴 논증에 대한 평가에서 '충분성' 평가를 찬반 저울질에서 찾는다. 하지만 논자의 의도를 담아내는 해당 논증에 대한 보다 적절한 분석에서 그런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반대사유는 찬성 이유와 같은 수준의 전제로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사유는 반대로서 효력이 없다'는 반대 무효 주장의 주제로서 인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무효 주장은 하나의 독자적인 전제로서 다른 전제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기에 전체적인 수렴적 지지 구조는 온전하게 유지된다. 이런 분석에서 반대사유에 대한 평가는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추론 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반대사유를 인용하는 반대 무효 주장에 대한 전제 수용 여부의 평가 대상이 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홍경남, 「연역과 귀납의 분류」,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2012, 31집.

홍경남, 「논증의 지지구조 연구」, 『철학탐구』, 중앙철학연구소, 2013, 34집.

Govier, T., "Reasoning with Pros and Cons: Conductive Arguments Revisited," *The Philosophy of Argument,* Vale Press, 1999, pp. 155-180.

Govier, T., "Conductive Arguments: Overview of the Symposium," J. A. Blair & R. H. Johnson (eds),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Individual author and College Publications, 2011, pp. 262-276.

Govier, T.,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Wadsworth, 2005.

Hansen, H. V., "Notes on Balance-of-Consideration Arguments," (eds) J. A. Blair & R. H. Johnson,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Individual author and College Publications, 2011, pp. 31-51.

Jin, R., "The Structure of Pro and Con Arguments: A Survey of the Theories," (eds) J. A. Blair & R. H. Johnson, Conductive Argument: *An Overlooked Type of Defeasible Reasoning,* Individual author and College Publications, 2011, pp. 10-30.

Paglieri, F., "Critical Review on *Conductive Argument," Informal Logic,* Vol. 33, No. 3 (2013).

Wellman, C., *Challenge and Response,*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1971.

www.kci.go.kr

Status of Counter-Considerations in Govier's Conductive Arguments

Hong, Kyung Nam (Chung-Ang Univ.)

This paper relates to conductive arguments, which are founded by Carl Wellman and developed by Trudy Govier. Govier analyzes and defines characteristics of the conductive arguments, and presents procedures of evaluating them. As the conductive arguments usually have counter-considerations as well as the supporting considerations, according to Govier, the suitability of reasoning critically depends upon balancing of pros and cons. It is argued that the conductive arguments take counter-considerations only as the subject of a cons-invalidation claiming premise, and the evaluation thereof should be adjusted accordingly.

Key words: Conductive arguments, Convergence, Counter-considerations, Pros and cons arguments, Govier

홍경남 e-mail: sensibilia@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4월 01일
심 사 일	2015년 04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05월 18일

www.kci.go.kr